

임실 지방하천정비 국비 확보

신덕면 등 하천재해예방 신규 대상지 91억원 투입

임실군이 집중호우 위험지역이었던 신덕면 일대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군은 하천폭이 좁아 침수 등 자연재해 위험에 크게 노출됐던 신덕면 서이치천이 지방하천 정비사업 신규 국가예산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선 시행하여 2023년까지 총 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서이치천을 대체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주요 대상지는 신덕면 삼길리 일원 총 1.7km구간으로, 제방축제와 호안정비, 교량 등의 구조물을 조성할 계획이

다. 또한 '문화와 생태가 살아 숨 쉬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생태 하천이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된다.

하천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소중한 생명과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0억대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에는 심 민 군수와 공무원들의 집요한 노력이 한 몫을 했다. 심 군수는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심 군수는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재산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며 "국가가 나서서 재해위험지역 주민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대규모 확보를 통해 하천법탈에 의한 재해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조성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하천으로 지역 이미지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심 민 군수는 "과거 서이치천 일대는 하천 폭이 좁아 침수 등 피해가 잦았던 지역인데 국비확보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의 힘찬 도약을 위한 신규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효영 기자

특색있는 향토음식 먹거리 선정

총 46종 임실N치즈축제서 선보여

임실군은 읍면별 특색있는 향토음식 먹거리로 주메뉴 15종, 부메뉴 31종을 최종 선정, 임실N치즈축제 때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할 계획이다.

치즈축제 식탁에 오를 이들 음식들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에서 요리실습 교육을 받아 엄선된 것들이다.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품평회에서는 향토음식관 운영에 따른 위생안전관리 철저와 친절교육도 병행하여 실시됐다.

이번 품평회는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인식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향토음식 발굴에도 적극 지원하여 임실고유의 특색있는 향토음식으로 관광 상품화 할 계획이다.

품평회에 참석한 심 민 군수는 "지역고유의 특색있는 향토음식을 살려 전통음식의 중요성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품목 고급화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서 향토음식 개발 가치가 높은 만큼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모두가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임실=진효영 기자

군은 18일 사전 준비 차원에서 음식 품평회를 가졌다. 심 민 군수와 생활개선임실군연합회 및 사회단체 회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가공센터 실습장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들이 첫선을 보였다.

대표적인 향토음식으로는 흑염소탕, 소머리국밥 등 친숙한 음식부터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슬기탕, 순대국밥과 치즈를 활용한 치즈수부꾸미, 치즈떡볶이 등이다

이번 품평회는 향토음식 먹거리

지역 매아리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임실군은 추석 연휴기간동안 응급·일반환자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18일 군에 따르면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응급환자와 일반 환자들의 진료 이용 편의를 위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약국을 지정·운영하는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기간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임실군보건의료원인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병·의원 18개소는 군민들의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약국 11개소를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 운영하여 관내 일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인 종합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 6가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현황은 군 홈페이지와 임실군보건의료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연휴기간 문의에 대비해 임실군 보건의료원 비상진료대책상황반(640-3110)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실=진효영 기자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이뤄내자... 남원시, 공약사업 실천결의

남원시는 18일 시청강당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결의의 대회를 갖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공약사업 실천결의의 대회에는 실무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6급 59명을 비롯해 150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얻었다.

민선7기 이환주호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심층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공약 사항을 지난 3일 확정 발표한 후 주요사업장을 방문을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쟁점사항은 현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모든 사업은 시민



남원시는 18일 시청강당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결의의 대회를 가졌다.

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과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오늘 실천대회를 통해 이런

의지와 결심을 다지고 다함께 시민이 원하는 잘사는 남원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직접 나섰다.

새농촌육성기금 소득 증대의 꿈을 이루세요

순창군, 올 하반기 소득지원사업 20억원 지원

순창군이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융자금지원에 나선다. 이번 자금지원은 새농촌육성기금으로 지원되며, 연이자 1% 상환기간은 3년이다.

18일 순창군에 따르면 새농촌육성기금 지원은 최근 경기침체와 여름철 기상이변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올 상반기에 30억을 배정해 67농가에 25억6천백만원을 지원했다. 하반기 배정액은 20억원으로 오는 28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금 체납자나

동일세대 구성원, 융자금 미상환 대상자는 신청이 제외된다.

새농촌육성기금은 농업인 5천만원, 농업법인인 1억원 한도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읍면장의 추천과 현지조사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1차 선정한다. 1차 선정대상자 중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농업신용보증보험에서 대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기금지원 대상 분야는 생산소득, 생산기반, 특별지원사업, 농지구입비, 농지구입비는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농자에 한해서

지원한다. 자금지원이 절실한 귀농인에게 농지마련을 통해 귀농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의 소득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순창군 농민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해 예산 누수가 없도록 군 보조사업 선정 제외나 부동산 가압류 등 체납액 감소 대책도 적극 펼쳐, 선량한 체무자가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무허가 축산농가 양성화

적법화 이행계획서 기한

순창군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9.27)이 임박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읍면 순회에 직접 나섰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에 의거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중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은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박학순 환경수도과장은 "국가 방침

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만큼, 무허가 축산농가들이 기속사육제한지역의 한시적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읍면 사무소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순회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모든 축산농가가 적법화 가능성에서 합격점을 받는 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우수'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2018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노후농기계 교체사업비 3억(국비1.5억, 지방비1.5억)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최했으며 전국141개시군 443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보유율과 임대실적 운영사항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평가지표로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 현장방문 면접조사 등을 통해 효율성과 농업 기여도를 지표삼아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의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요원(직원)들의 자력증 보유 현황은 농기계 정비기능사 및 산업기사, 전기, 자동차, 용접, 건설기계운전기능사 등등 많은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4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사철 경합기종을 다양 확보, 일요일 근무, 카드시스템 도입, 운송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